임실에 학교복합시설 조성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 총 220억원 투입, 청소년복합문화공간 등 세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1차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임실 학교복합시설'이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년 1차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임실 학교복합시설'이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임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부 110억원, 자체비 60억원, 임실군 50억원 등 총 220억원이 투입돼 임실동중학교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1층의 연면적 5,696.45㎡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시설 내에는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조성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공간 △창의력과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미래교육 체험공간 △다양한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학생자치공간 등이 들어선다.

특히 임실동중학교와 도로 간 단차를 활용해 운동장 지하에 115면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효율적 공간 활용'과 '지역주민 편의 극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2023년 부안 변산돌봄센터 △2024년 1차 순창 학교복합시설 △2024년 2차 남원 동부권 학교복합시설과 정읍 학교복합문화센터 등 총 4개 시군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선정으로 5개 시군에 총 사업비 892억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임실 학교복합시설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세수 감소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학교복합시설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9일 전북대학교에서 'XR실습실'과 'AI서버실'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실감형 콘텐츠 기반 교육·연구 플랫폼 구축의 핵심

전북대, XR실습실·AI서버실 구축… SW중심대학사업단 주도

실감형 콘텐츠와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교육·연구 플랫폼 구축의 핵심이 될 'XR실습실'과 'AI서버실'이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에 구축됐다.

9일 전북대에 따르면 SW중심대학사업단(단장 김성찬)이 조성한 이 시설은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지난 9일 열린 개소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시 관계자, 김성찬 사업단장과 관련 교수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XR실습실'은 최첨단 VR·AR 장비와 모션 캡처 시스템, 3D 콘텐츠 제작 도구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학생들이 다양한 산업 현장과 연계된 실감형 콘텐츠 개발을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AI서버실'에는 고성능 GPU 서버와 대용량 데이터 저장 장비가 구축돼 있어 학생과 연구자들이 대규모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전북대는 XR실습실과 AI서버실 개소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실질적인 XR·AI 교육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미래지향적인 소프트웨어 교육 모델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XR과 AI는 교육과 산업,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이라며 "이번 XR실습실과 AI서버실 개소를 계기로 전북대가 디지털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찬 사업단장은 "XR실습실과 AI서버실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및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첨단 실습 및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이라며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학습 기회를, 연구자들에게는 첨단 기술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특화역량 BI 육성 지원사업 선정

전주대 창업보육센터, 산학협력형 부문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2025년 특화역량 BI 육성 지원사업' 산학협력형 부문에 선정됐다.

9일 전주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창업보육협회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창업보육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창업 기업의 성장 지원 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2년간 추진된다. 이번 선정은 체계적인 창업 지원과 산학협력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교내 창업기업 발굴과 육성에 중점을 두고,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또한 교수·학생 창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기술 발전과 기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상우 센터장은 "'특화역량 BI 육성 지원사업' 선정은 전주대학교의 창업 지원 체계와 산학협력 기반이 결합한 성과"라며 "혁신 창업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산학 연계를 통한 기술 사업화를 촉진해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맞춤형 창업 교육, 전문 멘토링, 투자 연계,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종합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초기 창업 기업의 성공적 성장을 돕고 있다. /장은성 기자

루디아선교센터 개관 예배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8일 신앙 교육과 선교 활동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루디아선교센터 개관 예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고액 기부자로서 루디아선교센터 건립에 큰 기여를 한 전지희 집사를 비롯해 신동아학원 차종순 이사장, 박진배 총장, 전주대발전목회자협의회 서화평 회장(샘물교회 담임목사) 등 교계 및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소그룹 채플 리더 30여 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전주대에 따르면 루디아선교센터는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의 헌신과 섬김의 정신을 본받고자 하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조성된 공간으로, 친밀한 나눔과 풍성한 교제를 위한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전주대는 이번 루디아선교센터 개관을 통해 신앙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 실천을 통해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사교육비 경감 전담팀 운영

추진 과제별 업무담당자 연구위원 등 30여명으로 구성

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한 전담팀(TF) 첫 회의가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전담팀을 운영키로 했다.

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한 전담팀(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교육부·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 전북 지역 전체 학생 1인당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전담팀은 유정기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학생 진로진학 지원 △학교교육 내실화 △사교육 선제 대응 등의 분야에서 내·외부위원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다각적 지원 체제를 구축해 학급별·교과별 사교육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사교육 주요 대응 방안을 기반으로 전북형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화, 고교학점제 시행,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신규 운영 등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내실화해 사교육이 경감되는 선순환 체제를 만들어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급별·교과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다문화가정 고교생에 진로 교육비 지원

전북교육청, 110명에 100만원씩… 기술·예체능 개발 기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다문화가정 고등학생 110명에게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진로교육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다문화가정 고등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100만 원 상당의 진로 교육비는 학원 수강비와 교통비로 활용할 수 있다.

주요 지원 분야는 △이미용, 용접, 굴삭기, 각종 자격 취득 과정 등 실무 중심의 기술 분야 △음악, 미술, 체육 등 창의성과 신체 역량을 요구하는 예체능 영역이다. 다만, 국·영·수 등 일반 교과 관련 학원 수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0~17일까지 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중도입국 학생,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기존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을 우선 고려해 제공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11~12일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전문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1~12일 이틀간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에서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전문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26학년도 대입 진학지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팀별 협의를 통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연수 첫날은 대입지원단 연수 및 현장지원팀장인 정승모 교사(전북사대부설고)가 '전북 대입지원단 운영 방안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어 서거석 교육감과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전북 진학지도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수 둘째 날에는 팀별 협의 내용 및 운영 계획 공유, 서점권 광주진학지도지원단장의 단위 학교 진학지도 지원 사례 강의가 마련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들이 맞춤형 진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입 진학지도지원단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상반기 교장공모제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일 2층 강당에서 상반기 교장공모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학교 구성원의 교육적 요구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책임경영이 가능한 역량 있는 교장 임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올해 3월 1일 기준 도내 60개교에서 운영중이다.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및 관심 있는 교직원과 학부모 등 1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교장공모제의 이해를 돕고, 제도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교장공모제의 이해 △교장공모제 신청 절차 △초빙형 교장공모제 운영 사례 △내부형 교장공모제 운영 사례 등을 소개했다.

교장공모 대상학교는 정년퇴직, 임기만료 등으로 교장결원이 발생한 학교 장의 후임보충이 필요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다.

한편 오는 9월 1일자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는 초등 40개교, 중등 23개교로 이중 교장결원학교(정년퇴직, 중임만료)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학교는 오는 22일까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중학교는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전북교육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아침 10분 독서'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 만전

전북교육청, '독서·인문교육' 강화로 아침 10분 독서운동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독서·인문교육의 일환으로 '아침 10분 독서' 운동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으로는 △아침 10분 독서 운영학교 지원 △책 읽는 학교문화 만들기 프로젝트(학급독서 운영학교) 지원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등이 있다.

아침 10분 독서와 학급독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아침 또는 학교 일과 중에 매일 일정한 시간 꾸준히 함께 책을 읽는 활동이다.

학급독서의 경우 △시 읽는 교실 △고전이 있는 교실 등 학교별로 특색 있게 운영된다.

현재 아침 10분 독서에는 280개교, 학급독서에는 250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전주용와초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10분 독서.

이는 도내 전체 학교의 70%가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에 동참하는 셈이다. 이들 학교에서는 150만 원씩의 운영비도 지원된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독서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실천 매뉴얼 영상 제작 및 배포, 우수 운영 실천학교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보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전북학생 시 페스티벌, 인문학 나들이, 전북 학생 인문학상 등 인문학 감수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더불어,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과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등 올해 10대 핵심과제의 하나인 독서·인문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에도 공을 들일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독서를 생활화하면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능력은 물론이고 인문학적 소양도 높아질 것"이라면서 "'아침 10분 독서' 등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독서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